

건축을 꿈꾸는 자

Some People Who Dream of Architecture

이재림, 문.

꿈이란?

꿈이란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채워지는 소중한 자원이다.

아울러 꿈이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에 시간과 함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다.

무릇 꿈이라 함은 사심 없는 신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래서 진한 감동이 전해지는 열망과 열정을 말하는 것으로 상향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전 투구하는 배타적 개념의 야망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꿈은 꿈을 꾸는 자가 현실과 맞서면서도 긍정적 시각을 잃지 않은 채 희망과 망상을, 포부와 허세를 구분해 낼 때 그리고 결과를 이웃과 공유하려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즉 꿈의 결실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화합과 나눔의 소산인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들

조앤 캐슬린 롤링(J.K. Rowling)은 「해리포터」의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젊은 시절은 순탄하지 못했다. 결혼의 실패와 연이은 실직 그리고 「수중에 돈이 생기기전에 지금 신은 신발이 맞지 않을 만큼 딸 제시카가 커 버리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했을 만큼의 지독한 가난이 그림자처럼 늘 그녀를 따라 다녔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아마도 가난에 대한 고통일 것이다. 가난이란 가난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파멸의 길을 걷게 하는 치명적인 환경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빈털털이에 의지할 곳 없었던 그녀의 삶은 가난의 고통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자하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명시절 나는 실업자에 이혼녀였지만, 내 신세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해리포터 이야기를 쓰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절로 명랑해져서 무일푼인 것도, 남편과 헤어진 것도 상관없었다. 내가 겪은 시련이 동화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리이야기는 내 어린 시절 상상의 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녀의 꿈은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단순하고 또 순수하다.

「해리포터」시리즈가 문학적으로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수준의 작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치는 단순히 작품성을 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리포터시리즈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며 올해 이 이야기의 마지막편인 7권이 나오기를 전 세계의 독자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친 그녀에 대한 세상의 평가인 것이다. 과연 그녀가 꿈꾸었던 상상의 세계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 그리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웃처럼 평범했던 그녀가 가난을 벗삼아 감성을 지켜가며 꿈을 실현시키고 그 결실을 어린 이웃들과 나누는 과정을 보고자하는 것이다.

줄줄이 터지는 한국영화의 대박 소식은 온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상큼한 청량제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 바야흐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인 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제규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한 순수 국내파 감독이다. 지금까지 그가 연출한 영화는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단 세 편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영화를, 그의 이름 석자를 한번도 듣지 못한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디 우리들뿐이겠는가? 영화가 수출되면서 그는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1999년 강감독이 비즈니스위크에 의해 〈아시아를 움직이는 50인〉에 그리고 2000년에는 「쉬리」가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조용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는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국영화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하다고 한다. 그의 욕심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현실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출세 지향적 성향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우둔한 꿈과 열정이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하기에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지켜보는 동안 필자는 내내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꿈을 실현시킬 열정이 내게 남아 있는 것일까?

상념 속에서 펼쳐지는 스크린의 장대한 줄거리의 미흡함이 눈에 띌 때도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될 때에도 오히려 정겨움으로 다가왔다.

그의 영화에 대한 작품성을 논하는 것도 역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다만 영화인 강제규의 꿈이 신념으로 이어져 하나씩 결과물로 탄생되는 과정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필자 자신을 반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싶다. 역시 이웃과 나누는 꿈의 결실이야말로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 영화 부흥에 헌신한 영화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계속될 그의 행보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구태여 정치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혁이니 견제니 하며 각자의 꿈(?)을 구현하고자 사분오열하는 정치판의 모습을 보고 있자

면 명분의 당위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화합과 조화로움을 넘어서 순간 그것은 이미 타락한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변처럼 개혁과 발전이라는 꿈의 구현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꿈을 잃은 자들에게는 화합도 없으며 감동의 순간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꿈은 가장 극명한 화합과 나눔의 소산이었다.

건축을 꿈꾸자 =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자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지키며 그 꿈을 착실히 실현해 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꿈꾸는 자가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주변에 꿈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것이다. 건실한 토양에서 건실한 수확이 약속되듯 꿈을 이루는 것은 꿈을 이해해주는 이웃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꿈을 꾸 자와 더불어 결실을 나눌 권리를 갖는다. 이것 또한 화합과 나눔의 이치 일 것이다.

건축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자는 누구일까?

필자에게 능력이 있어 주인공이 된다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상관없다. 건축인 누군가의 꿈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건축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를 기대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작가는 희망의 글을 쓰는 것이며,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이 있고, 한 목소리로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했던 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감독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건축을 꿈꾸자.

건축을 사랑하는 뜻뜻한 후배들이 있고, 건축인을 동경하는 건강한 이웃들이 있으니 우리들의 꿈꾸기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